

## 文學에 잇서서 倫理와 論理 (6)

金午星

파토스 즉 激情, 情熱 등이 客觀에 依하여 생겨짐은 事實이나, 그것은 深化될수록 客觀性을 超越하여 主體的 意識으로서 自己充實에 汲汲하다. 이러한 파토스의 心理生活을 描寫하는 것은 오직 主體的 리아리즘만이 可能하다. 그런데 우리의 心理生活은 客觀的 리아리즘(自然主義 가튼)과 가티 어떤 既存的인 것으로 描寫할 수는 업다. 왜-그러냐 하면 心理生活은 항상 瞬間에서 瞬間으로 飛躍하고 잇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心理生活을 單히 現實的으로 描寫할뿐 아니고 心理의 可能的 現象을 開拓하며 發見하며 探求, 創造하는데 主體的 리아리즘의 眼目이 잇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主體的인 心理描寫의 弊害를 우리는 看過해서는 안된다. 客觀主義가 人間의 內面生活을 一樣的으로 事象 속에서 解消시킴과 가티 主體的 리아리즘은 人間의 心理生活을 社會的인 實生活과 乖離시키는 것이다. 人間의 心理生活은 그것 全部를 客觀에 歸納시킬 수는 업다할지라도 心理의 方向을 決定하는 것이 客觀的 現實이며, 또 現實을 超越한 心理가 可能하다면 그것은 將來할 現實, 즉 可能的 現實에 對한 心理作用이요 現實性 업는 心理作用은 한 개의 妄想이다. 그러므로 主體에 充實한 파토스는 항상 客觀에 向하는 로고스에 依하여 調節되며 檢證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主體的 리아리즘은 性格描寫에 잇서 特長을 갖고 잇다. 客觀主義나 理性主義는 個性을 破壞한다. 온갖 個性을 揚棄하고 普通性에 參加하는 것만이 倫理的 行爲라 했다. 그러나 個性이 업는 곳에 倫理的 行爲는 잇을 수 업다. 왜-그러냐 하면 倫理的 行爲는 각 個人的 眞實한 自己表現임으로써이다. 自己 眞實은 一般性에서 나타날 수 업고 오직 各自의 獨創性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主體的 리아리즘은 人間을 性格的으로 描寫하는데 잇서 업지 못할 것이다. 主體的 리아리즘은 그 心理描寫를 通하여 人間의 個性들을 그 獨自性에 따라서 區分할줄 알며 그 個性들을 과고 들어가는 대서 새로운 性格들을 探求하며 創造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主體的 리아리즘에 立脚한 倫理가 眞正한 意味의 倫理인가?를 한번 反省하지 안을 수 업다. 왜-그러냐 하면 個人的 倫理란 成立

할 수 업슴으로써이다. 『單獨者란 範疇에 나의 모든 倫理的 意志는 無條件으로 結付되어있다.』라고 게르케골[키에르케고르]은 말했다. 單獨者 즉 個性에게서 倫理的 主體의 概念이 深化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倫理는 單히 個個人的 眞實性만을 일음이 아니고, 또한 社會的 生活의 基準을 意味하는 것이다. 眞實性은 倫理의 主體가 될 뿐이다. 이 眞實성이 收容되고 못되는 것은 오직 客觀的 現實이다. 그러므로 性格描寫, 또는 性格創造에서 어더진 倫理의 主體로서의 眞實성이 自己의 現實性을 獲得하려면 그것이 單히 性格에 벗을 것이 아니고 한 개의 타입을 찾지 안흐면 안된다. 타입은 心理生活에서 지여지는 것이 아니고 社會生活에서 지여진다. 그러므로 性格은 파토스의 이라면 타입은 로고스의이다. 타입은 外部에 對한 理性的 洞察에서만 어더지는 것이다. 한 개의 獨創的 性格이 한 개의 타입에 담겨질 때에 거기서 비로소 倫理는 成立되는 것이다. 그것은 單히 主體의 리아리즘만으로는 不可能하고 主體의 리아리즘과 客觀的 리아리즘의 結合에서만 可能한 것이다. 人間은 單히 主體가 아니고 主體인 동시에 客觀인 兩者의 辯證法的 統一體이다. 그러므로 人間的 行爲의 規準으로서의 倫理도 客觀主義와 主觀主義가 止揚을 통해서 辯證法的으로 統一되는 대서만 成立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만 倫理文學은 리아리즘이면서도 單히 現實에만 執着하지 안코 可能한 現實을 創造할 수 있는 創造的 리아리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創造的 리아리즘을 나는 휴먼리즘이라고 불너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今日의 文學者의 倫理가 한 개의 反抗精神에서 나타나고 잇슴을 注目하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反抗의 精神! 그러면 文學者는 무엇에 對하여 反抗하는가? 도스토이엠프스키의 精神을 繼承하는 文學者들은 自明性, 또는 明證性에 對하여 反抗함으로서 自己의 倫理的 眞實을 삼으려고 한다. 도스토이엠프스키는 『二二는 四』와 가튼 것을 가장 攻擊하였다. 그러한 科學的 明證性은 우리의 證明이 업서도 存立하는 것이니, 우리의 精力을 거기에 消耗할 必要는 업다. 오직 그러한 明證性 때문에 항상 威脅을 맞는 非合理的 存在를 擁護하는 것이 文學者의 任務가 아니냐고 웨스둑[세스토프]은 絶叫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明證性에 對한 反抗은 무엇을 意味함인가? 眞理의 目標는 모든 疑惑을 排除하고 오직 自明的인 것을 論證함에 잇을 것이다.

그럼에 不拘하고 自明性, 明證性을 拒否함은 너무나 非現實的 態度가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見解를 發見할 수 잇다. 하나는 그들을 狂人の 妄想으로 돌너는 것이며, 달은 하나는 自明性을 反抗하는 것이 未來 文學者의 倫理的 精神이라는 것이다. 하나 나는 이 두 見解를 한 가지로 肯定할 수

업다 웨! 그러나 하면 그것을 狂人の 忘想으로 돌니기에는 그 自體에 너무나 眞實性이 있으며, 自明性에 對한 反逆을 文學者의 精神으로 본다면 文學者는 이 世界에 存立할 權利부터 가질 수 업는 때문이다. 文學者도 人間인 點에서 讀者를 包含한 모든 人間과 더부러 共感의 世界에서 살고 있다. 文學者는 모든 人間과 共感의 世界에 살고 있음으로서 그들의 文學이 모든 人間에 享受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그들의 自明性에의 反逆精神이 忘想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一般에게 享受되는 것으로 보아 今日 人間이 한갓 忘想에 사로잡혀 있는 까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現代人을 모다 忘想病者로 보는 것은 그 自身이 한 개의 忘想이 아닐가?